



 <p>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p> <p>http://www.emerics.org/</p> <p>2018. 10. 25. 인도남아시아</p>	<p>「이슈&트렌드」</p> <p>EU, 對 캄보디아 무역특혜 철회 절차 개시</p> <p>작성 김미림 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대양주팀)</p>
---	--

- 2018년 10월 5일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집행위원은 캄보디아 정부에 무역특혜(EBA: Everything But Arms) 철회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통보함.
- EU의 EBA 제도는 UN 개발정책위원회(UN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가 최빈개도국으로 분류한 49개국에 대하여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수출품에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2018년 10월 5일 캄보디아에 대한 6개월간의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공지하며 명확하고 분명한(clear and evident) 인권 및 노동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EBA 철회가 확정될 것이라 밝힘.¹⁾
- EU는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심화된 캄보디아 정부의 인권탄압이 EBA 철회 요건인 “UN과 ILO의 핵심협약 상 원칙의 심각하고 체계적인 위반(Serious And Systematic Violation),”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본 철회 절차를 개시함.
- 구국당은 금권·관권선거, 선거인명부 조작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2013년 총선에서 당시 28년간 집권해온 훈센 총리의 인민당과 단 5%p의 득표율 차를 보이며 크게 선전하였고 인민당의 위협적인 경쟁세력으로 부상하였음.²⁾
 - 이에 훈센 총리는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구국당 강제해산, 구국당 인사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등을 통해 사실상의 일당 체제를 구축하였고 실질적 야당이 부재한 총선에서 인민당은 의회 의석 125석 중 전석을 차지하며 재집권에 성공함.
 - 2018년 2월 EU는 구국당이 참여하지 않는 총선은 민의를 반영할 수 없고 공정성과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구국당 해산과 의석 환수 조치를 철회하고 겐소카(Kem Sokha) 前당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캄보디아는 이를 묵살함.
 - EU는 캄보디아의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캄보디아가 인권과 자유를

1) EBA 규정(Regulation) 제19조 8항에 따르면 EU위원회는 모니터링·평가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019년 10월 4일까지 캄보디아에 대한 EBA 철회 여부를 확정해야 함.

2) 2013년 인민당은 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추상적이고 오래된 구호를 내세운 반면 구국당은 노동자, 공무원의 최저임금 인상 등 전 공약을 경제적 인센티브로 채우고 反베트남 정서와 훈센 정권의 불법토지수용 이슈 등을 활용하여 폭넓은 지지를 확보함(정연식(2015), 「2013년 캄보디아 총선: 선거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동남아시아 연구』, 제25권 1호, p. 102~106, 한국동남아학회).

존중하지 않는다면 EBA를 철회할 수 있음을 수차례 강조함.

- 캄보디아는 2001년 EBA 지위 획득, 2011년 EBA 원산지규정 완화를 활용하여 의류 및 신발을 중심으로 對EU 수출을 크게 확대해왔음.
- 2017년 EU는 캄보디아의 최대 수출산업인 섬유봉제업 총 수출의 38.4%를 차지하였고 캄보디아는 EBA가 적용된 對EU 의류 및 신발 총 수출의 19.4%를 차지하였음.³⁾

표 1. 2018년 캄보디아 총선 관련 주요 사건

일시	내용
2013.07.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해외 망명 중이던 구국당 前당수 삼랑시 귀국 및 국왕 사면, 역대 최저 득표율(49%)로 인민당 승리, 구국당, 부정선거 주장 및 불복시위 전개
2017.07.	인민당, 득표율 51%로 지방선거 승리(투표율 90%, 구국당 득표율: 44%)
2017.09.	구국당 前당수 껌소가 국가반역죄로 구속
2017.11.	대법원, 외부세력과의 결탁을 통한 국가전복 시도 혐의로 구국당 해산명령, 구국당 주요 인사 118명 정치활동 5년간 금지, 구국당 의석, 선거 미참여 정당에 분배
2018.07.	인민당, 득표율 77%로 의회 의석 전석을 차지하며 승리(투표율 83%, 무효표 비중 1.6%(2013년)에서 8.5%로 증가), 훈센 총리 집권 연장(2018년 기준 재임기간 33년)
2018.09.	껌소가 前당수, 석방 후 가택연금

자료: 정연식(2015), 「2013년 캄보디아 총선: 선거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동남아시아연구』, 제25권 1호, p. 91, 한국 동남아학회; Oxford Analytica(2018), "Cambodia's Hun Sen faces risks despite likely poll win." (July 26); "Cambodia's Hun Sen may seek conciliatory tone." (August 16); "Cambodia's Hun Sen will not ease up on serious rivals." (September 14).

그림 1. EU의 對캄보디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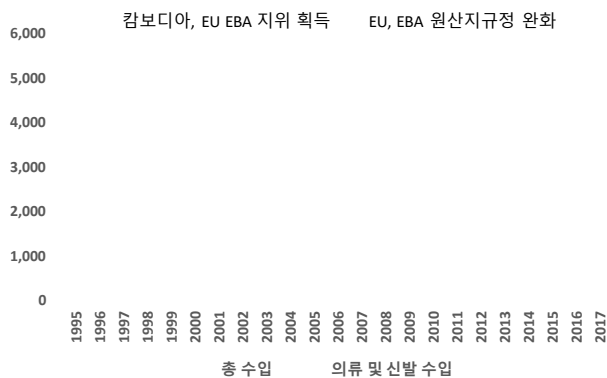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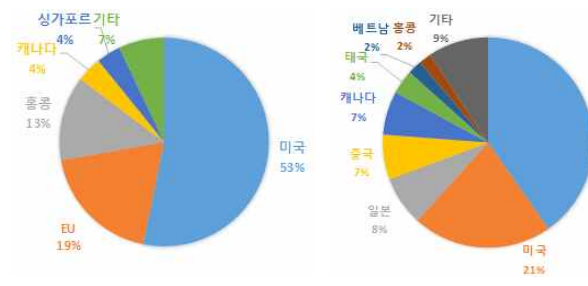


그림 2.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국

(2007년)

(2017년)



- 훈센 총리는 정권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이로 인해 EBA 철회가 확정될 것이라는 예측에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이 경우 섬유봉제업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⁴⁾

3) 캄보디아 최대 제조업인 섬유봉제업은 2017년 캄보디아 총 수출의 80.9%를 차지하였고 2016년 60만 5,000명을 고용하였음. 섬유봉제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0.5%(21억 1,1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UN Comtrade (검색일: 2018. 10. 18); ILO(2017), 「What explains strong export and weak employment figures in the Cambodian garment sector?」, p. 10-11).

4) EIU는 2018년 10월 5일 EU 통상집행위의 발표를 반영하여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힘(EIU(2018), 「EU moves to suspend Cambodia from EBA scheme」.)

- 총선 전 훈센 총리가 EU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데에는 인민당 내부에 구국당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정권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임.
- EBA 철회는 캄보디아産 의류와 신발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캄보디아의 對EU 수출, 고용 및 생산 감소, 섬유봉제업 투자지로서의 매력 하락에 따른 타국으로의 투자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음.
 - 역내 주요 경쟁국인 미얀마는 EBA 수혜국이며 캄보디아보다 임금 수준이 낮음.
 - 베트남은 EBA 수혜국은 아니나 2018년 EU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캄보디아보다 임금 수준은 높지만 인프라, 거버넌스 등 투자환경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EBA 철회 절차가 진행되는 2019년에는 부정적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나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그 영향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EMERiCs**